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에 관한 연구

- S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hool's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cused on a Case of S Public Library

이 수 영(Su-Young Lee)*

김 유 승(You-Seung K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개요 |
| 2. 이론적 배경 | 3.2 실습교육 요구 분석 I : 학생 |
| 2.1 선행연구 분석 | 3.3 실습교육 요구 분석 II : 사서 |
| 2.2 실습교육의 현황과 유형 | 4. 개선방안 |
| 3. 사례 연구: S공공도서관 실습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5.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연구로서, 표준교과목과 실습교과목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논한다. 전국 4년제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 및 학부에 개설된 도서관 실습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소재 42개 구립 공공도서관의 실습교육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기본업무형, 참여형, 주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사례연구로서 서울시 소재 S공공도서관과 C대학 문헌정보학과 간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참여 학생과 현장 사서들의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의 개선을 위해, 교수·교육기관, 사서·실습기관, 학생 등 실습교육 주체들의 당면 과제와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ssues on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t public libraries and propos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m.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bases of providing practical training programs with the recent change in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It also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both practical training program courses offered by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the operation of programs managed by 42 public libraries. This study categorizes the programs into three types, including basic task type, participatory type, and proactive type,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Furthermore, it researches a case of the cooperative public library practice program, which S public library and C University jointly conduct, and analyzes students and librarians' need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s a result, the study identifies all the parties' challenges and provide a gradu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program.

키워드: 공공도서관, 교육과정, 문헌정보학, 도서관 실습교육, 사서
public library, curriculum,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library practice program, librarian

* 대림대학교 문헌정보과 전임강사(sulibrary@daelim.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47-168,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147]

1. 머리말

도서관을 둘러싼 거시환경의 변화와 함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서관이 다루어야 할 정보자원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서의 임무와 책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관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적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에 부과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서들은 더욱 다양한 과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 양성의 중심이 되는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역시 도서관 현장만큼이나 신속한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현실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시대적 소명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표준화 되지 않은 교과과정의 객관성 유지 문제로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의 필요지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교과과정, 현장과 학계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까지, 여러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본 연구가 주목하는 도서관 실습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들이다. 도서관 실습교육은 정보전문가 혹은 사서로서의 전문성 습득을 위한 주요 교과과정이다.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다시금 이론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인 실습교육이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 실습교육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여건은 아직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

지 못하다.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관 실습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와 실무적 논의의 부재로 인해, 실습교육은 여전히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공되는 교육 내용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며, 오히려 현장사서의 업무만을 과중시키는 것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합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습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 실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살펴보고, 둘째, 현행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공공도서관의 실습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그 구성요소 등을 논한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서울 소재 S공공도서관과 C대학 문헌정보학과가 연계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참여 주체들의 요구들을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분석

사전적 의미로 현장 실습교육이란 이론 학습을 거친 학생이 관련 학문의 이수과정 중에 현장 경험을 익혀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력양성 과정의 하나다.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학의 성격을 띠는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도 실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배타적 활동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인 사서의 양성과정

에서 현장 실습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은 실습을 “이론의 연구 및 학습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실제 업무 및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과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연경(2001, 9)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보다 원활한 사서자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도서관 실습 프로그램은 이론 학습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로서의 실무적 역할을 선형적으로 수행해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직업교육에서 비롯된 근대적 문헌정보학 교육이 정보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학문의 이론적 측면만큼이나, 현장 기반의 실무적 측면이 가지는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현장기반의 실습교육은 문헌정보학교육에서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한 방법으로,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실무 능력을 개발하고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실습교과목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도서관 실습과 관련된 초기 연구로는 구본영(1983)의 ‘한국에 있어서 사서실습교육의 실태 조사연구’를 들 수 있다. 구본영은 1983년 당시 국내 27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중 16곳을 대

상으로 도서관 실습 실태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이후 도서관 실습 현황 및 필요성을 다룬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문헌정보교육 일반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를 논의한 이제환 외(2005)의 연구를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담당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논한 장윤금·정행순(2008)의 연구,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문제점을 다룬 정재영(2011)의 연구 등 다수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렇듯 문헌정보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 성과들 속에서 실습교육, 실습교과목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 성과로는 곽동철·심경·윤정옥(2008), 노동조(2009), 노영희·안인자·최상기(2011/201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도서관실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곽동철·심경·윤정옥(2008)은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개발한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안에서 ‘도서관실무실습’을 유일한 공통기초과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¹⁾ 노동조(2009)가 제안한 표준교과목 24종에서도 ‘도서관실습’이 ‘필수’ 교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²⁾ 같은 맥락에서 노영희·안인자·최상기의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실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2011)는 현장사서들로부터 제기되는 도서관 실습교육의 필요성에

1) 곽동철·심경·윤정옥(2008)이 제시한 문헌정보학 표준교과과정안은 공통기초인 ‘도서관실습’과 함께, ‘목록법’, ‘분류법’, ‘도서관자동화’, ‘정보서비스론’, ‘도서관경영론’ 등 5개 핵심필수과목, 11개 필수과목, 16개 선택과목을 포함한 33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노동조(2009)는 ‘도서관과 사회’, ‘문헌정보학개론’ 등 2개 기초과목, 12개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표준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2011년 국내 현장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필요 교과목 조사에서도 실습은 교수자 주도형 강의보다도 2배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며,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은 뒤이은 후속 연구인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2012)를 통해,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표준교과목을 분석하고 필수, 핵심, 선택으로 구분되는 교과목을 제시하는데, ‘사서실습’을 6개 필수 교과목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관 실습 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이론적 인식과 크게 괴리되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는 우리나라 문헌정보 교육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 도서관 실습 교과목의 분포 추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분석한 엄영애(2009)의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실습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2.8%, 1980년대 2.6%, 2000년대 2.3%로 나타났다. 비록 수치 상으로는 다소 감소했지만,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외연이 크게 넓어진 것을 감안할 때 도서

관 실습 교과목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15개 교과명 중 분포도 순위에서 14번째를 차지한 반면, 2000년대 31개 교과명 중 분포도 순위에서 15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 교과명의 범주가 크게 증가하고 교과목도 세분화되는 와중에도 실습교과목의 지위가 하락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전체 교과목 중 2%대의 분포도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정착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습 교과목이 핵심 교과목의 범주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사서양성 교과목에서 차지하는 실습교육의 위치와 매우 대조되는 것이다. 미국 ALA의 인증을 받은 50개 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52개 교육 프로그램 모두가 실습을 핵심 교과목의 하나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엄영애 2007, 28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정보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실습 프로그램의 구체적 구성과 실행 계획까지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을 다룬 김성준(2011a/2011b)의 논문 2편이 이 영역까지를 다룬 가장 유사한

<표 1> 문헌정보 교과목 중 도서관 실습 교과목 분포의 변화³⁾

연도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전체 교과명 수	15	23	31
전체 교과목 수	178	685	865
도서관실습교과목 수	5	18	20
도서관실습교과목 분포도	2.8%	2.6%	2.3%
도서관실습교과목 분포도 순위	14/15	12/23	15/31

3) 엄영애(2009)가 제시한 연대별 교과목 분포 통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연구 성과다. 김성준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사서교사 양성에 있어서의 실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 실습을 위한 발전 방향과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사서와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 및 실습과정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사서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의 여러 문제들에 유의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2 실습교육의 현황과 유형

문헌정보학 교육현장의 실습교육 관련 교과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34개 4년제 문헌정보학 학과 및 학부에 개설된 교과목을 조사하였다.⁴⁾ 교과목명은 실무실습, 인턴쉽, 도서관 실습, 문헌정보학 인턴쉽, 사서실습, 현장실습, 전문업무실습, 도서관교육실습, 사서 인턴쉽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2〉 참조).

〈표 2〉 전국 4년제 문헌정보학 학과 및 학부에 개설된 도서관실습 교과목 현황⁵⁾

대학명	학과명	실습 교과목	전공여부	학점	대학명	학과명	실습 교과목	전공여부	학점
LIS01	문헌정보학과	실무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19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정보센터 인턴쉽	전공선택	3학점
LIS02	문헌정보학전공	인턴쉽	전공선택	3학점	LIS20	문헌정보학과	-	-	-
LIS03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21	문헌정보학과	정보센터, 도서관, 출판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04	문헌정보학과	-	-	-		문헌정보학과	현장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05	문헌정보학과	-	-	-	LIS22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3학점
LIS06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정보센터 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23	문헌정보학	-	-	-
LIS07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인턴쉽	전공선택	3학점	LIS24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08	문헌정보교육학과	-	-	-	LIS25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실무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09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26	문헌정보학과	전문업무실습	전공필수	3학점
LIS10	문헌정보학과	정보센터 현장실습	전공선택	2학점	LIS27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11	도서관학과	사서실무실습 (취업자학점)	전공선택	9학점	LIS28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실무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12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29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교육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13	문헌정보학과	-	-	-	LIS30	문헌정보학과	전문업무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14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장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31	문헌정보학전공	도서관교육실습	전공선택	2학점
LIS15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전공심화	3학점	LIS32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전공선택	2학점
LIS16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정보센터 실습	전공선택	1학점	LIS33	문헌정보학과	인턴쉽	전공선택	1학점
LIS17	문헌정보학과	사서실습	전공선택	3학점	LIS34	지식정보학부	사서인턴쉽	전공선택	3학점
LIS18	문헌정보학과	-	-	-					

4) 2012년 8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각 학과 및 소속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하였음.
5) 각 대학(교)명은 익명으로 기호화하였음.

〈표 2〉와 같이 4년제 문헌정보학 학과 또는 학부 및 전공이 개설된 전체 34개 대학교 중 도서관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27개교, 79%에 달한다.⁶⁾ 하지만 이 중 단 1개교만이 실습교육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었다. 그 외 모든 학교가 실습 교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배정하고 있었다. 실습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개설한 곳이 25개교, '전공심화'⁷⁾로 개설한 곳이 1개교다. 또한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도서관실습에 단 한 과목만을 배정하고 있었다. LIS21만이 '현장실습' 과목과 함께 '정보센터·도서관·출판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2가지 실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과목 부족은 배정 학점으로 이어졌다. 실습 과목은 대부분 3학점 또는 그보다 작은 학점으로 개설이 되어 있었다. LIS11가 '사서실무실습' 과목을 개설하여 취업자에 한해 실습학점으로 9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실습과목은 3학점 또는 그 이하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약 140학점을 이수하고 그 중 최소 60여 학점을 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행 학사제도를 감안할 때, 3학점 단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실습 교과목은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최소 60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다고 할 때, 실습 교과목은 전체 전공 이수학점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선택 사항으로 밀려나 개설 수와 배정 학점도 미미한 상황에서 도서관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와 현장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지 않을 경우, 실습 교과목의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장과 학계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이다. 사서교사 교육실습의 경우, 관찰, 참가, 수업, 평가의 절차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4주간의 교육실습 과정을 거친다. 반면 예비사서를 위한 실습교육의 경우, 실습의 과정과 기간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각 기관별로 담당 사서의 업무와 의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한 실습교육의 문제가 전적으로 교육기관의 몫인 것은 아니다. 실습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도서관 역시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서울시 24개 구 42곳 구립도서관의 실습교육 현황은 〈표 3〉과 같다.⁸⁾

현황조사를 위한 전화 면담을 통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많은 사서들이 실습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식과 현실은 또 한 번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42개 도서관 중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8곳이었다. 그 중 10곳만이 실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개 도서관은 비정기적으로 실습교육이 수행되고 있었다. 대학과 도서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

6)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7개교 중 LIS08은 '문헌정보교육학과'로서 학과 특성상 도서관 실습교과목 대신 사서교사를 위한 교생실습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7) LIS15는 전공교과목을 필수과목인 '전공핵심'과 선택과목인 '전공심화'로 구분하고 있다.

8) 본 현황조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5일간 전화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시 25개 구 중 구립도서관이 없는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구립도서관 각 2곳을 선정하여 모두 42개관의 실습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각 도서관의 명칭은 익명으로 기호화하였다.

〈표 3〉 서울시 구립도서관 실습교육 운영현황 조사

지자체	도서 관명	현장 실습	실습 프로그램	일정/기간	기타
강남구	PL1	×	×		
	PL2	×	×		
강동구	PL3	○	×	부정기적 실습교육	
	PL4	×	×		
강북구	PL5	×	×		평생학습지도사 실습교육 실시 중
강서구	PL6	×	×		실습교육 실시 예정
	PL7	×	×		사회복지학과 실습교육 실시 중, 문헌정보학과 실습교육 계획 중
관악구	PL8	×	×		
	PL9	×	×		
광진구	PL10	○	×	부정기적 실습교육	
	PL11	×	×		본관 중심으로 실습생을 받고 분관으로 파견함
구로구	PL12	○	×	부정기적 실습교육	
	PL13	○	×		
금천구	PL14	○	×	부정기적 실습교육	
	PL15	○	×		업무매뉴얼 중심으로 실습교육 운영
노원구	PL16	○	×	정기적 실습교육(최소 6개월)	
	PL17	○	×		대학과 MOU 체결, 4개 영역 연수
도봉구	PL18	×	×		
	PL19	×	×		
동대문구	PL20	×	×		실습교육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요청 없음
동작구	PL21	○	×	부정기적 실습교육	
	PL22	○	○	정기적 실습교육(6~8주)	자체 프로그램 개발·활용
마포구	PL23	○	×	정기적 실습교육(4~5주)	배가 활동 중심의 실습교육 실시
서대문구	PL24	○	○	부정기적 실습교육	실습기간에 따라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PL25	×	×		PL24도서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도서관 실습운영
서초구	PL26	×	×		방학 중 사회복지사나 대학생 봉사활동 도움을 받음
성동구	PL27	○	×	정기적 실습교육	대학 요청으로 실습교육 실시
성북구	PL28	○	○	정기적 실습교육(4주)	사서연수자료집을 자체로 보유·활용하고 있음
	PL29	○	○	정기적 실습교육(4주/ 1년 2회)	
송파구	PL30	○	○	정기적 실습교육(방학 중 4주/ 1년 2회)	실습 후 실습인정서를 발급함
	PL31	×	×		
양천구	PL32	×	×		
	PL33	×	×		
영등포구	PL34	×	×		
	PL35	×	×		
용산구	PL36	×	×		
은평구	PL37	○	○	정기적 실습교육(학교별 상이함)	
	PL38	○	○	정기적 실습교육(학교별 상이함)	
중구	PL39	×	×		방학 중 문헌정보학과 학생 봉사활동과 인턴십 운영
	PL40	×	×		
중랑구	PL41	×	×		
	PL42	×	×		

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노원구 PL16, PL17), 다수의 도서관이 학교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부터 4주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실습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은 7개 도서관에 그쳤다. 실습프로그램의 유무와 실습교육의 정기적 실시여부를 기준으로 18곳의 실습교육을 구분해보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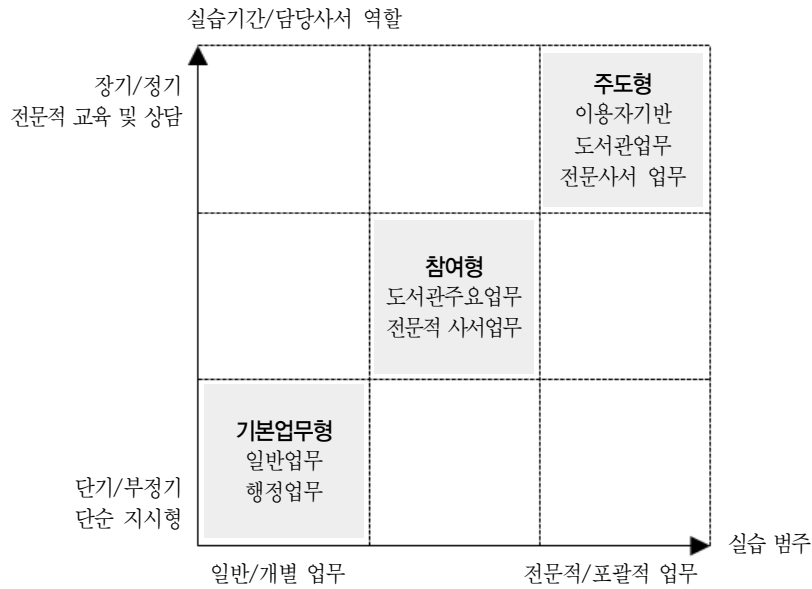
실습교육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절반 이상이 실습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습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조화 정도와 활용도는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서연수 자료집'을 자체 보유, 활용하고 있는 곳은 성북구 소재 도서관(PL28) 한 곳뿐이었고, 대부분 실습교육의 일정과 내용만을 개괄적으로 담은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나마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곳은 기존의 업무매뉴얼 등을 실습교육에 활용하고 있었다.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실습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별 교육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실습교육은 이러한 외형적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 편차가 컸다. 배가활동 등 기본적 업무만을 중심으로 실습이 실시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 업무 전반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들, 더 나아가 이용자 프로그램의 주도적 참여까지를 목표로 두고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한 실습교육의 범주를 유형화해보면, 도서관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업무형', 사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맡는 '참여형', 그리고 도서관 주요업무와 함께 문화프로그램 등 이용자서비스까지를 기획하고 시행해보는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유형을 참여학생 실습의 범주와 실습기간 및 담당 사서의 역할 정도를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기본업무형'은 행정 업무를 포함한 일반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실습교육으로, 도서관의 반복적인 대출 반납 업무와 서가정리를 기본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과과정 중에 시행하는 도서관 실습 외에 직장체험이나 국가근로 장학제도에 따라 실습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실습교육 본연의 목적보다는 당면한 도서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표 4> 실습프로그램과 정기적 실시여부에 따른 구분

기간 프로그램	정기적 실시	부정기적 실시
유	PL22, PL28, PL29, PL30, PL37, PL38	PL24
무	PL16, PL17, PL23, PL27	PL3, PL10, PL12, PL13, PL14, PL15, PL21



〈그림 1〉 공공도서관 실습 유형

두 번째 '참여형'은 실습 기간 중에 도서관의 주요 업무 전반을 순차적으로 실습해봄으로써 도서관의 업무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형식으로, 주로 단위 부서별로 배치되어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도서관 실습교육에서 널리 수행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주도형'이다. '참여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비사서의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주요 업무에 참여하고, 나아가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론적으로 습득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시켜볼 수 있다. 단, 이러한 형식의 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와 실습 담당사서의 업무량 증가 등이 요구된다.

현황 조사 대상 도서관의 상당수는 실습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주된 이

유는 도서관의 인적 자원 부족이었다. 기존 도서관 업무를 위한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실습교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적정 기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책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부재하게 되고, 실습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부족한 인적 자원이나마 일정하게 배분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경우, 이러한 대비마저 불가능하다. 전담 인력 부족 현상이 실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부재로 인해 한층 증폭되는 것이다.

인적 자원 부족 문제와 함께 실습교육의 장애는 도서관 공간의 문제였다. 도서관의 전체 면적이 넓어도 사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 실습생에게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도서관의 기본 인력 외에도 직장체험연수생, 국가근로장학생, 지역공동체일자리체험 등의 인원으로 인해 도서관 실습생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습교육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압축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식 교수법과 달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습교육은 결코 시간 효율적 학습법이 아니다. 또한 실습교육 동안 담당 교수와 접촉이 부족하고, 담당 도서관에 전적으로 교육이 맡겨짐으로 인해 실습이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서 업무가 아닌 비전문적인 일상 업무만을 부담시키는 등, 도서관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상의 어려움 또한 현장기반 실습교육의 걸림돌이다. 기존 교과과정 속에 실습 교과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실습교육 결과의 평가방법과 학점인정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장기반의 실습교육은 기존 교과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개별 학생의 요구와 성과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습교육을 담당할 도서관의 인적, 재정적, 공간적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아래, 교수, 학생,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도서관이 실습교육 맡는 동안이라도, 교수가 교육 책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교수의 적극적 지원과 교수·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Monroe 1981, 2).

3. 사례 연구: S공공도서관 실습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3.1 개요

본 연구는 도서관 실습교육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 동작구 소재 S공공도서관과 C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연계한 실습교육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습교육 프로그램 전과정을 참여 관찰하였고, 실습교육 참여 학생과 사서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각각 실습후기 분석과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한 실습교육은 2011년 1학기과 2012년 1학기 C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운영론' 수업의 일환으로 2차례 이루어진 것이다. 2011년도 실습교육은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14까지 5주간, 2012년도 실습교육은 2012년 4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목요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예비사서와 이용자간의 만남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계획되었다. 다수의 기존 실습교육이 낮은 수준의 일상적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이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공공도서관과 문화프로그램'이라는 3가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주제 영역과 내용 및 참여형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는 '공공도서관의 이해'

〈표 5〉 공공도서관 실습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프로그램 주제 영역	내용	참여형태
공공도서관의 이해	-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 - 운영사례 강의 및 참관	전체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 공공도서관 업무체험 - 공공도서관 이용자서비스(서평, 주제서가, 참고봉사)	개인별
공공도서관과 문화프로그램	-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평가	조별

영역은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해당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주이용자 분석과 주요 추진사업 파악 등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과 각종 문화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구성되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영역에서는 대출반납서비스, MARC 교정, 장서정리, 실물수서 등 기본 업무 체험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대출대에서의 면대면 참고서비스와 주제별 서평지만들기, 주제별 서가구성하기 등과 같은 간접적 참고서비스를 체험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공공도서관과 문화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조별로 인원을 나누어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일주일에 한 조씩 5~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2011년도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총 14명과 담당교수 1명, 담당사서 3명의 참여와 지도로 진행되었다. 1주차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5주로 구성된 실습교육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취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2주차 첫 교육은 어린이 자료실의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사서직의 의미에 대한 토의로 구성되었고, 2주차 두 번째 교육은 각 사서들이 운영하는 연령별 독서프로그램 참관으로 이루어졌다. 실습생들의 선택에 따라 유아와 성인독

서토론 모임으로 나누어 실시된 이 교육은 4~5주차 프로그램 준비의 일환으로, 연령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이해와 관찰을 목표로 하였다. 3주차는 종합자료실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성인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주차와 5주차에는 조별로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조는 도서관의 기본 업무를 실습하였다(〈표 6〉 참조).

2012년도 실습교육은 총 학생 15명, 담당교수 1명, 담당사서 4명의 참여와 지도로 운영되었다. 교육기간은 2011년도보다 3주 길어진 총 8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용자 프로그램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서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2~3주차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강의하고, 도서관주간 기념 프로그램에 참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4주차에는 독서지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독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계획,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6~8주차에는 각 4~5명으로 구성된 3개 조가 순서대로 독서지도 프로그램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를 진행하였다. 2011년과 동일하게, 1개 조가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나머지 조들은 도서관의 기본 업무를 실습하였다(〈표 7〉 참조).

〈표 6〉 2011년도 실습교육 프로그램 계획표

	일시	내용	진행
1주차	3.15.	- 동작상도국주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내용 소개 - 담당 사서 배정 및 조 구성 (1조: 3명~4명)	총괄사서
2주차	3.22.	어린이 자료실 프로그램 소개 및 사서직의 의미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3.24~25.	3.24 (10~11시): 사서와 함께 하는 독서 플랜노트 만들기 3.24 (14시~15시): 사서와 함께 책여행 3.25 (10시~11시): 고래가 춤추는 도서관	실습생별 담당사서
3주차	3.28.	종합자료실 프로그램 소개 및 사서직의 의미	종합자료실 담당사서
	3.31.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의 첫 번째 시작 - 서평	실습생별 담당사서
4주차		1조: 4.5. (16:30~17:30) -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2조: 4.7. (16:30~17:30) -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3조, 4조: 도서관 기본업무 수행 (4.5~10. 사이 본인이 가능한 날 선택가능)	실습생별 담당사서
5주차		3조: 4.12. (16:30~17:30) -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4조: 4.14. (16:30~17:30) -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1조, 2조: 도서관 기본업무 수행 (4.12~17. 사이 본인이 가능한 날 선택가능)	실습생별 담당사서

〈표 7〉 2012년도 실습교육 프로그램 계획표

	일시	내용	진행
1주차	4.5.	공공도서관 운영론 수업: 동작상도국주도서관 협력프로그램 내용소개 및 담당사서배정 및 조구성	총괄사서
2주차	4.10.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외부사업을 중심으로 1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4.12.	도서관 주간기념 프로그램 참여 1	실습생별 담당사서
3주차	4.17.	도서관 주간기념 프로그램 참여 2	실습생별 담당사서
	4.19.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외부사업을 중심으로 2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4주차	5.1.	독서지도 실제운영사례 연구 1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5.3.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이용자분석	어린이자료실 담당 사서
5주차	5.8.	독서지도 실제운영사례 연구 2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5.10.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서의 첫걸음 - 추천도서 소개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6주차	5.19.	1조: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실습생별 담당사서
		2·3조: 도서관 기본업무 수행 (5.8~13 사이 본인이 가능한 날 선택)	
7주차	5.24.	2조: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실습생별 담당사서
		1·3조: 도서관 기본업무 수행 (5.15~20 사이 본인이 가능한날 선택)	
8주차	5.29.	3조: 병아리 사서의 책 놀이터: 어린이프로그램 진행	실습생별 담당사서
		1·2조: 도서관 기본업무 수행	

3.2 실습교육 요구 분석 I: 학생

다음에서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 29명이 실습교육의 후기 형식으로 작성한 글을 통해 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은 앞서 논의한 실습교육의 3가지 주제영역 구분을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공통적 요구를 검토해보고, 업무체험 및 이용자 서비스,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업무별 요구사항과 의견을 살펴본다.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웠던 전공지식을 실무에 적용시키며, 이론과 실무 간의 차이와 연관성에 대해 인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었다.

강의나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닌 실무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이자, 이미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서선생님들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A).

마치 TV로만 축구를 보다가 축구장에 선수로 나온 사람처럼 이론과 실재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F).

책상에서 이론과 상상으로만 이뤄졌던 내용을 직접 이용자를 대면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K).

더 나아가 실습교육은 학생들의 진로와 사서로서의 전망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수년 간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서로서 그리고 운영주체로서의 도서관 체험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습을 통해 이용자의 역할로서 밖에서 보는 도서관이 아닌 안에서 사서의 입장으로 보는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I).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던 도서관의 상황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계기는 물론,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할 수 있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A).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으로 진로를 정하고자 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B).

이번 프로그램은 내 마음 속의 흥미를 찾는 동기를 부여해 준 시간이었다. [...] 공공도서관을 장래에 생각해보던 사람에게나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H).

이렇듯 실습교육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 그리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무엇인

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태도, 그리고 예비 사서로서의 동기부여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 실습생은 “단 한 번의 작은 경험이라도 자신의 큰 꿈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이런 경험을 다른 학우들에게도 꼭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쓰고 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F). 이러한 맥락에서 실습교육은 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사서와 이용자 간의 또 다른 소통 형식이며, 헌신적 사서를 배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습교육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습교육 기간에 관한 문제, 실습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공공도서관의 자원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실습교육 운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먼저 다수의 학생들이 짧은 실습교육 기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먼저 시간적 제약이다. 한 달 동안 실시된 실습이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적게는 한 번 진행되었다. 이렇게 짧고 단편적인 시간 동안 공공도서관의 전체적인 업무를 배우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많은 것을 깨닫기는 했으나, 수박 겉핥기 식의 체험은 아니었나 하는 자기반성이 되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B).

일부 학생은 이를 교생실습과 비교하며,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이 개선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생 실습과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예비 선생님이로서 생활한다. 그 분야로

발을 내키는 데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실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B).

한 달 동안 실시된 실습이었지만, 공공도서관 운영론 수업시간 내에 진행된 짧고 단편적인 시간 동안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배우기란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교생실습처럼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실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H).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의 학생들은 프로그램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단순 일반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실습교육의 한계를 넘고자, 이용자와의 만남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던 프로그램이 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기대와 조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이용자 프로그램도 공공도서관 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이지만, 수서하고 책을 분류, 목록하는 작업과 이용자 정보서비스 업무도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 관련된 실무 실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C).

내가 개인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해 궁금했던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나 각자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이었는데 너무 이용자대상의 독서지도 및 행사에 관련된 내용에만 치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D).

이용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기회였지만, 이용자 그룹이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아쉽다. 다양한 이용자 계층과 프로그램 중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D).

학생들은 이용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데 부담감을 가졌다. 특히, 5~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동의 발달 및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S공공도서관이 어린이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도서관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은 짧은 실습교육 기간과 사서 인력의 절대 부족을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구현되지 못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습교육이 '공공도서관운영론'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탓에, 실제 실습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업무영역도 한계가 있었다. 공공도서관 업무 전반을 체험해보기에는 처음부터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사서 인력의 부족이다.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의 인력부족 인해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에게 깊이 있는 업무를 배우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습기간 동안에 S공공도서관 인력 모두가 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기존의 도서관 업무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제약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점이었다.

사서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인력부족문제로 인하여 바쁜 상황 속에서 깊이 있는 업무를 배우기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보다 균등한 업무 접근과 상세한 실습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2012년도 실습교육생 D).

하지만 실습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실습교육 프로그램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너머의 영역에 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주된 문제는 현행 교과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4학년이 되어서야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조금 더 저학년일 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막연한 생각도 더 분명한 생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다”(2011년도 실습교육생 K)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습교육은 단기간의 과정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기에 “문헌정보학과 4년 과정 중간 중간에 더 자주 있었으면”(2011년도 실습교육생 B)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도서관 현장의 요구와 현행 교과과정의 내용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급변하는 거시환경과 함께 진화하는 정보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정작 “도서관 현장과 전공서적 사이에는 은하수만큼의 거리”(2012년도 실습교육생 S)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제껏 학습한 이론적 가치가 숨 돌릴 틈 없이 바빠 돌아가는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2012년도 실습교육생 C)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외에 실습교육 전에 연계되는 교육을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통해 도서관의 정보자원을 조직하고 다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반면, 다양한 이용자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실습교육 준비를 위한 교과내용의 변화 등 교수와 교육기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3.3 실습교육 요구 분석 II: 사서

다음에서는 2차례에 걸쳐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S공공도서관 사서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습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의견을 분석해보고자 한다.⁹⁾ 전반적으로 사서들은 실습교육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배의 입장에서 전공교육과 도서관 현장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학생들에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내용을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사서 A).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입장에서 후배들이 현장과 학계의 이론과 현실 사이에 균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는다(사서 B).

또한 학생들의 실습 활동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용자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접근 방식이 기존 사서들이 진행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크게 고무되고 있었다. 새로운 시도를 접목한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사서들은 학생들이 기존의 전형적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 부담이란 이유로, 인력부족이란 이유로 꺼렸던 것들을 학생들이 주저 없이 해내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실습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사서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도서관 사업 연계의 대상, 이용자 서비스 등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 방식은 도서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사서 D).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나 이용자 접근방식에서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평상시의 가치관과 시선으로 업무를 하는 경향이 짙었음을 시인한다. 학생들의 참신한 접근방식과 아이디어가 도서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사서 E).

도서관 근무 경력이 쌓이게 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순수한 열정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의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비

9) S공공도서관 사서들과의 인터뷰는 2012년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집단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서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열정과 도서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접하게 되면서 사서들의 태도에 변화가 보였다(사서 A).

한편, 현장 사서들의 고충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대다수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S공공도서관도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습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습교육 진행은 만만치 않은 업무 부담을 야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열의는 높지만, 체계적인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 사서로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현장의 소리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교수법이나 방식에 서툴기 때문에”(사서 B)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회를 거듭함에 따라 더 발전되고 진화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고 싶다”(사서 C)는 의지와는 달리, 이에 투자할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외에 실습교육에 대한 태도와 열의가 학생 개인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불안감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 개별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들을 평가할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인터뷰를 새로운 대안과 희망에 대해 논의로 마무리 지었다. 2차례에 걸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이제는 실습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이야기하며, “참여하는 모두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실습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교육기관과의 협의”(사서 C)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 개선방안

이상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도서관 실습교육의 이론적 측면과 현황을 살피고, S공공도서관 실습교육 사례를 통해 학생과 사서로부터의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문헌정보학 실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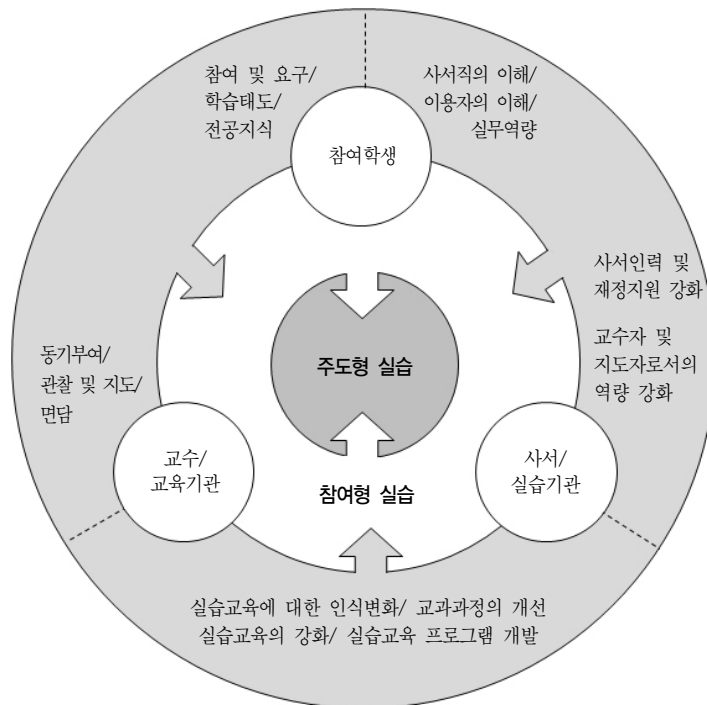
앞선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도서관 실습교육의 주요 주체를 ‘교수 및 교육기관’, ‘사서 및 실습기관’, ‘참여 학생’으로 구분한다. 각 주체는 실습교육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어느 한 주체의 문제는 다른 주체의 문제와 상호 연결되며, 실습교육 전체의 문제로 나타난다. 앞선 논의들 속에 나타난 각 주체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와 교육기관은 실습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헌정보교육에서 부가적 지위에 머물고 있는 실습교육은 체계화된 교육 내용은커녕, 그 실효성조차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실습기관의 조직적, 인적, 물적 자원은 실습교육을 원활히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더욱이, 사서교사의 실습교육과 달리, 표준화·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예비사서의 실습교육은 사서와 실습기관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수행을 위한 참여 학생들의 소양과 자세는 능동적 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개별적 편차를 보였다. 이는

실습교육의 체계화된 형식과 내용의 부재, 실습 기관의 자원부족으로 인한 개별지도의 어려움 등과 겹쳐, 실제 실습교육 운영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하는 다수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이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본업무형' 또는 낮은 수준의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 교육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도서관 인력 충원을 위한 편법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는 '기본업무형'의 실습교육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 내실 있는 '참여형' 실습의 구현, 더 나아가 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주도형' 실습으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실

습교육의 내실화와 체계화라는 당면 과업을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첫째, 도서관 실습교육에 대한 교수 및 교육 기관의 인식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교과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복수의 연구를 통해,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통해, 실습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문헌정보학 교육이 더 이상 사서양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학문의 외연 확장과 함께, 그 교육의 목표 역시 폭넓은 영역의 문헌정보전문가 양성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 교육은 여전히 사서양성과과정으로서의 고유한



<그림 2> 문헌정보학 실습교육의 주체별 영향요인

제도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다수의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이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현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문헌정보학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도서관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개선은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실습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여타 전공과목 역시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교과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교수를 비롯한 현장사서와 학생 등 실습교육의 각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 내용, 방법, 절차, 지도방법소통,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습교육 참여 학생들의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해 현장 실습교육 전 과정에 걸친 교수자의 관찰, 지도,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실습기관의 인적, 물적 지원과 준비가 요구된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 관종의 도서관들은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에 상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인 도서관 여건의 개선없이, 실습교육 형식과 내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도서관들은 실습교육을 부가적 업무가 아닌 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이용자와의 또 다른 소통 형식이며, 미래의 헌신적 사서를 배양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습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은 도서관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적 가치에 대한 효율적 투자인 것이다. 또한, 실습교육을 주도하는 현장 사서들은 스스로 실습교육의 핵심 주체임을 능동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의 교수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준비하여야 하며, 학계와 연계하여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기적 사서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가 필요하다. 실습교육은 장기적으로 문헌정보학계 그리고 도서관계 전체의 편익이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 수혜자는 학생들 자신이다. 본 연구는 실습 참여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사서로서의 적성과 소양을 확인하고, 직업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모든 참여 학생들이 나누고자 한다면, 그들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와 도서관인으로서 기본 소양, 그리고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개별 학생의 몫으로 남겨둘 수는 없다.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 실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도서관 실습교육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하여 기본업무형·참여형·주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실습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적

용 가능한 도서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여 참여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주체의 요구에 근거한 체계적 실습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실습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된 바,

추후 현장과 학계 간의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실습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관중 도서관을 대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관종별, 주제별, 지역별, 이용자별, 기능별로 특성화된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길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논의의 작은 한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심경, 윤정옥. 2008. 사서직원 자격요건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2] 구본영. 1983. 한국에 있어서 사서실습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0: 3-37.
- [3] 김성준. 2011a. 사서교사 교육실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83-203.
- [4] 김성준. 2011b. 예비사서교사의 교육실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93-213.
- [5] 김연경. 2001. 문헌정보관리실습. 서울: 경인문화사.
- [6]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 [7]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1. 한국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실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5-29.
- [8]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79-80.
- [9] 이제환, 이기명, 김정호, 윤유라, 이은주. 2005.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현장 사서의 평가와 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45-69.
- [10] 장윤금, 정행순. 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481-501.
- [11] 정재영.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보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05-223.
- [12] 엄영애. 2007. 미국과 영국 정보전문직 교육 현황의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277-298.

- [13] 엄영애. 2009.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09-427.
- [14] Monroe, Margaret. 1981. *Issues in Field Experience as an Element in the Library School Curriculum: A Background Paper AALS 1981 Conference*. Washington: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ong-Chul, Shim, Kyung, & Yoon, Cheong-Ok. 2008. *Saseojikwon Jagyeokyogun Gaejeongeul Wihan Gichoyeongu*.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2] Koo, Bon-Young. 1983.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ibrary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0: 3-37.
- [3] Kim, Sung-Jun. 2011a. "A study on the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teacher librarians' practice teach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83-203.
- [4] Kim, Sung-Jun. 2011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librarians' teaching practice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83-203.
- [5] Kim, Yeon-Kyeong. 2001. *Munhunjeongbo Gwalli Silseum*. Seoul: Gyeonginmunhwasa.
- [6] Noh, Dong-J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51-468.
- [7] Noh, Younghee, Ahn, In-Ja, & Choi, Sang-Ki. 2011. "A study on evaluating the practicaln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o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5-29.
- [8] Noh, Younghee, Ahn, In-Ja, & Choi, Sang-Ki.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operating model and standard courses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79-80.
- [9] Lee, Jae-Whoan, Lee, Ki-Myung, Kim, Jung-Ho, Youn, You-Ra, & Lee, Eun-Ju. 2005. "Evaluation and requirement of librarians on LI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45-69.
- [10] Chang, Yunkeum, & Jeong, Haengsoon. 2008.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and status continuing education for children's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481-501.

- [11] Chung, Jae-Young. 2011.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focusing on the reference service curriculu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05-223.
- [12] Um, Young-Ai.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ent education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the U.S.A and the U.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277-298.
- [13] Um, Young-Ai. 2009.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09-427.